

# 목표는 우승... KIA 시즌은 지금부터



KIA 타이거즈 김기훈(왼쪽) 등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29일 인천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챔피언스필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다.

### 선수 54명 등 총 74명 美 플로리다 출국...3월 7일까지 스프링캠프 체력·기술·전술 훈련...美 독립리그·대학팀들과 15차례 연습경기 루키들 설레는 발걸음...양현종·이창진 "부상 없는 캠프 목표"

'호랑이 군단'이 2020시즌 대장정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29일 인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이들은 30일 오전 9시45분 비행기로 캠프가 마련된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나스로 향하게 된다. 선수만 54명에 이르는 대규모 캠프단이 꾸려지면서 오전부터 챔피언스필드는 짐을 챙기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선수들과 프런트는 개인 짐과 도구 가방 등을 분류한 뒤 화물차에 싣는 것으로 대장정의 첫걸음을 뒀다. 첫 캠프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버스에

오른 이들이 눈에 띄었다. 프로 입단과 함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게 된 '고졸 루키' 정해영, 박민, 홍종표 등은 일찍 경기장에 나와 짐을 챙기고 출발 시간을 기다렸다. 투수 정해영은 "기대보다 긴장이 더 많이 된다. 안 다치고 최대한 많은 걸 배워서 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텔린다"며 캠프 출발을 앞둔 소감을 언급한 내야수 박민은 "안 다치고 캠프 잘 치르고 오겠다"고 말했다. 내야수 홍종표는 "아마추어 때 스프링캠프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캠프에 가게 되니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며 "행들 잘 따라서 팀에 보탬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캠프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안지홍의 FA 보상선수로 새 식구가 된 우완 김현수와 2차 드레프트로 두산에서 이적한 사이드암 변시원(개명 전 변진수)도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KIA에서의 첫 캠프에 나섰다. 지난해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으로 캠프를 맞이한 이들도 있다. 지난 시즌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외야 한자리를 차지한 이창진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일단 부상 안 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투수조 조장으로 2019시즌 '젊은 마운드'를 이끌었던 고영창은 지난해처럼 초반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고영창은 "작년에도 캠프 초반부터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개막전에서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캠프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개막 엔트리에 들겠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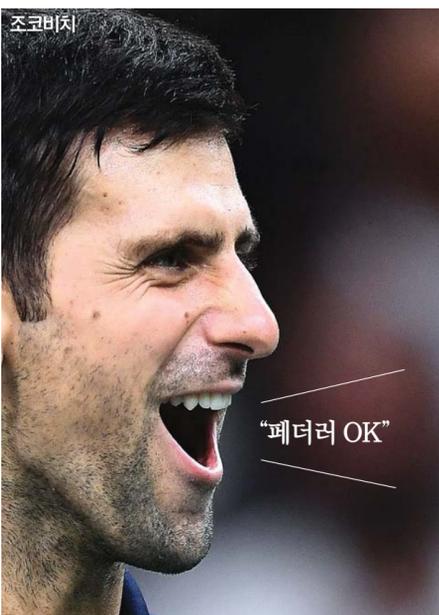
에이스 양현종은 마운드 '말똥'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양현종은 "투수들 잘 이끌어서 시즌 잘 치를 수 있게 코치님과 이야기도 많고, 선수들과 이야기 많이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캠프 잘 하고 오겠다"며 "특별한 목표는 없다.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팀에 좋은 보탬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고 역시 '부상 없는 캠프'를 우선 언급했다. 한편 KIA 캠프단은 2월 1일부터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체력, 기술, 전술 훈련을 진행한 뒤 20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A·B조로 나눠 20일 두 경기를 소화하는 KIA는 3월 4일까지 휴식일 없이 미국 독립리그 및 대학 팀들과 15차례 연습경기를 치른다. 이후 캠프단은 현지시간으로 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 변경 K리그팀 중국 원정 → 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AFC 챔피언스리그의 중국 경기 일정이 변경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 예선 경기 중 중국 클럽의 홈 경기로 예정된 1-3차전 일정을 모두 원정 경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려, ACL 참가 선수와 구단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FC서울, 울산현대, 수원삼성 그리고 전북현대는 예정과 다른 일정으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게 됐다. E조에 속한 서울은 2월 11일 예정됐던 베이징 귀완과의 원정경기 대신 안방에서 1차전을 갖는다. 대신 5차전(4월 22일)을 원정경기로 치른다. 상하이 선화와의 2차전(2월 18일) 원정을 앞두고 있던 F조의 울산도 홈에서 먼저 경기를 갖고, 6차전(5월 6일)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수원과 광주우형과의 G조 1차전(2월 12일) 경기도 수원의 홈경기로 변경됐다. 수원은 4월 21일 원정길에 나서 5차전 대결을 벌인다. H조에서 경쟁하는 전북도 원정경기로 예정됐던 상하이 상강과의 2차전(2월 19일)을 홈경기로 먼저 치른다. 이후 5월 5일 원정경기로 6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총 상금 2800억 골프리그 출범 예고 월드골프그룹, 2년뒤 18개 대회 개최 추진

미국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버금가는 새로운 프로골프투어가 2년 뒤 출범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월드골프그룹(WGG)이라는 단체는 오는 2022년 프리미어골프리그(PGL)를 시작한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주요 매체에 돌렸다. PGL은 총상금 2억40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내걸고 8개월 동안 18개 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PGA투어 총상금 4억 달러(약 4700억원)의 절반가량이지만 개최 대회 수가 절반 이하라서 대회당 상금 규모는 더 크다. PGL 대회는 특히 150여명 안팎의 선수가 출전하는 PGA투어 대회와 달리 48명의 선수만 출전한다. 선수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PGA투어 대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PGL 대회 우승 상금만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이른다. PGA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상금의 두배가 넘는다. 시즌 17번째 대회에서 시즌 상금왕이 결정되고 마지막 18번째 대회는 팀 대항전으로 치른다. 선수에게 팀 구단주 자격으로 최종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기회를 준다. WGG는 설명 자료에서 "팬과 선수, 방송사 모두 딱 원하는 방식이라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면서 "정상급 선수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L 설립에는 뉴욕 웰스트리트의 투자 은행인 뫼튼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스베이거스 스포츠 도박업체들도 투자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GA투어는 PGL 창립 움직임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든, 허상이든 관계없이 다른 투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계심도 드러냈다. 제이 모나한 PGA투어 커미셔너는 최근 선수위원회 위원 16명을 따로 만나서 "PGL과 PGA투어 양쪽 다 뛰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프로골프투어 역시 "우리 일에 집중할 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선수들은 동요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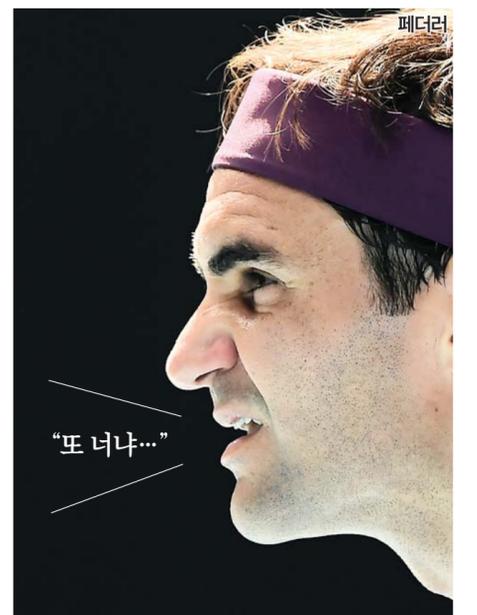


## '챔프 vs 황제' 50번째 외나무다리 대결

'디펜딩 챔피언'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100만호주달러·약 570억원) 4강에서 맞대결한다. 페더러는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테니스 샌드그린(100위·미국)에게 3-2(6-3 2-6 2-6 7-6(10-8) 6-3)로 이겼다. 페더러는 4세트 게임스코어 4-5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매치 포인트를 세 차례 허용했고, 타이브레이크에서도 3-6으로 뒤지는 등 한 포인트만 더 잃으면 탈락이 확정되는 매치 포인트 위기를 7차례나 넘겼다. 이번 대회 3회전에서도 존 밀먼(47위·호주)을 상대로 5세트 10점 타이브레이크에서 4-8로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이후 연달아 6득점, 극적으로 탈락 위기에서 벗어

난 페더러는 이날도 거의 다 쫓던 경기를 뒤집고 4강까지 진출했다. 2017년과 2018년에 연달아 호주오픈을 제패한 페더러는 지난해는 16강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에게 겨 탈락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조코비치가 밀로시 라오니치(35위·캐나다)를 3-0(6-4 6-3 7-6(7-1))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조코비치 vs 페더러 30일 호주오픈 테니스 4강전 각각 대회 7회·6회 우승 조코비치, 상대전적 3승 앞서

이날 조코비치의 상대 라오니치는 8강 전까지 서브 에이스 82개를 터뜨려 최다를 기록한 선수다. 이날도 조코비치를 상대로 서브 에이스에서 18-4, 공격 성공 횟수 48-29로 압도했으나 실책에서 48-14로 4배 가까이 많았던 것이 패인이 됐다.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상대 전적에선 26승 23패로 조코비치가 앞서 있다. 최근 대결에서는 지난해 11월 니토 남자 프로테니스(ATP) 파이널스에서 페더러가 2-0(6-4 6-3)으로 이겼다. 지난해 월드컵 결승에서는 조코비치가 3-2(7-6(7-5) 1-6 7-6(7-4) 4-6 13-12)로 힘겨운 승리를 따냈다. 둘이 호주오픈에서 만난 것은 2016년 준결승 이후 이번이 4년 만이다. 2016년 4강에서는 조코비치가 3-1(6-1 6-2 3-6 6-3)로 승리했다.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준결승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페더러 OK"

"또 너냐..."